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0. 1.(목) 12:00
(지 면) 2026. 10. 2.(금) 조간

노인의 날,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서울 성동구 신규 노인보호구역 현장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 교통·전기·가스 생활안전교육 등 함께 진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일(금) 제3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일대에서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과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사근동 노인복지관 일대에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와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한양지구대,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참여기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어르신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교통·전기·가스 등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현장점검과 거리 캠페인, 생활안전교육을 연계해 추진한다.

먼저, 사근동 노인복지관 일대 노인보호구역을 찾아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현황과 어르신 보행환경을 살펴보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이어 노인보호구역 주변 보행자와 지역주민, 상인 등을 대상으로 보행 및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노인보호구역 내 서행과 보행자 보호를 당부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현장 캠페인에 이어 사근동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전기·가스 분야의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과 교통 사고 예방법을 안내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가스 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교육한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어르신의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동형 장바구니를 기념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과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인보호구역 등 어르신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생활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안전예방정책실 안전문화교육과	책임자	과 장	이영인 (044-205-4270)
		담당자	사무관	유승효 (044-205-4281)

